

H. Bergson에서의 지성의 문제

염 수 균

目 次

- | | |
|----------------------|-------------|
| I. 머리말 | 3) 지성성과 물질성 |
| II. 생명과 의식 | IV. 지성과 학문 |
| 1) 물질성과 정신성 | 1) 지성과 운동 |
| 2) 생명과 의식 | 2) 지성과 직관 |
| III. 지성의 기원과 기능 | 3) 과학과 철학 |
| 1) 심리적 행동으로서의 지성과 본능 | V. 맺는말 |
| 2) 인식의 측면에서 본 지성과 본능 | |

I. 머리말

인식의 문제는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단지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안다는 것 자체를 반성해 보는 작업이 철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세 이후에 인식론은 철학의 핵심 분야로 자리를 굳혔다. 그렇게 된 것은 인식론의 문제가 이전 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철학의 많은 분야를 다른 학문에 넘겨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연 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전의 철학적 업적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곧바로 자연 현상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철학은 포기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하였다. 그에 따라서 인식론은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철학만의 유일한 영역으로서 각광을 받게 된다.

근대 인식론의 출발점이 된 이러한 자연과학과 철학의 구별의식은 오늘날의 철학이 자연과학과는 손을 잡을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는 철학과 과학이 어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다루게 되더라도 전혀 다른 관점과 접근 방법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이다. Bergson이 주목한 것은 학문에 있어서의 이러한 일종의 위기이다.

Bergson에 의하면 철학과 과학의 대상은 모두 경험적實在이다. 철학과 과학이 동일한 경험을 대상으로 출발한 이상 그들의 결과도 하나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는 하나의 학문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ergson은 철학과 과학은 서로 협력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實在에 대한 하나의 학문을 세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러한 입장에서 종래의 철학과 과학을 모두 비판한다. 특히 종래의 철학과 과학이 모두의 존하고 있던 知性의 정체를 밝혀내고 비판하는 작업이 Bergson 철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Bergson의 철학에서도 인식론적인 문제가 주된 문제다. 바로 그점에 있어서 만큼은 Bergson도 근대이후의 인식론적 전통 속해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철학과는 매우 다르다. 그는 인식현상자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사태로서 다룬다. 즉, 그것이 경험적인 사태인 한에 있어서만 학문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태에 대한 사실(fact)들을 수집해야 한다. 즉 그것이 어떠한지 일어나고 있다는 자료(data)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그런 모든 사실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법칙(law)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사실도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법칙에 예외된 사실이 있다면 그만큼 그 법칙은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Bergson은 인식현상이 오직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하고도 단순한 사실에 주목한다. 나아가 그는 인식현상이 생명체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점을 통찰한다. 결국 생명과 인식은 어떤 상관성을 갖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경험적 탐구는 오직 생명체에 관한 탐구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인식론은 생물학과 직결된다. 주로 지성의 문제를 다룬 "창조적 진화"의 제1장에서 그는 그 당시 생물학의 중요한 문제인 進化論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원래가 생물학자였던 그는 종래의 생물학이 생명체의 물리적 법칙에만 집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물질현상과 심리현상이 공존하면서 하나로 뭉쳐있는 생명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물질과 정신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하나의 생명현상을 만들어 내는가를 파헤친다. 결국 우리는 Bergson이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물학, 물리학, 심리학을 모두 동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중의 기존의 어떤 이론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각각의 분야에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피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의 논문집 "사유된 것과 움직이는 것(La Pensée et Le Mouvant)"에서 그는 철학은 모름지기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작업은 어떤 작업보다 어렵지만 그것만이 實在에 대하여 하나의 설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막연한 꿈 속에 빠져 있는 철학과 외적인 업적에 압도당하여 實在에 대한 편협된 인식에 집착하는 자연과학과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Bergson이 지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창조적 진화"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의 이해가 일천하여 필자의 주관적 견해없이 단지 Bergson의 저서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강의 보고서와 같은 느낌이 든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Bergson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식

에 대해서다. 보통 우리들은 Bergson 을 비합리주의자, 신비적 직관주의자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필자도 Bergson 의 철학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런 측면이 강조됐다는 것이다. Bergson 이 지성을 비판했지만 부정한 것은 아니다. Bergson 은 오히려 지성이 삶에 있어서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나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단정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성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단지 생명에 관한 학문에 있어서 지성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부각시켰을 뿐이다. 그렇지만 학문에 있어서도 지성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보면 지성적 작업의 도움없이 생물적 본능으로서만 남게 되는 직관이 부정당한 느낌이 든다. 우리가 Bergson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대결한 것은 생명에 대한 학문에서도 지성만을 맹신하는 사람들이지 지성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II. 의식과 물질과 생명

1) 實在의 두 측면(精神性과 物質性)

Bergson 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학문의 대상은 경험적 세계의 참된 모습인데 그것을 實在(realité)라고 부른다. 철학은 바로 총체적인 實在에 대한 인식에서 성립한다. Bergson 이 출발하는 근본적 가정은 實在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물질성(matérialité)과 정신성(spiritualité)의 양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實在이 하나라는 말은 실재세계 속에는 다른 것과 독립해서 성립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연결되어 서로서로에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존재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재에 있어서의 이 연결의 측면이 정신성이고 그 원인은 conscience¹⁾에 있다. 이렇게 실재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동질적인 하나는 아니다. 그안에 수많은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서로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것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서도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만, 후자를 알기 위해서는 반성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물들이 서로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로 영겨있지 않고 서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분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감각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동일한 온도, 동일한 질

1) conscience의 사전적인 뜻은 의식이다. Bergson 은 이 개념을 두가지로 쓰고 있다. 하나는 모든 심리적 현상의 근원으로서의 conscience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식의 의미로서의 conscience이다. Bergson 은 이 두 경우 모두 conscience라는 한 단어로 표시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을 구분하여 전자는 conscience라고 원어를 그대로 썼고, 후자는 의식이란 번역어로 표현하였다.

감을 가진 것에 대한 촉각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질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구분이 안된 대상을 볼 수 없다. 우리의 지각은 실재에 있어서 항상 구분된 측면을 지각한다. 실재의 이 측면을 Bergson은 물질성이라고 말하고 그 원인을 물질(matière)에서 구한다.

Bergson은 이 두 측면 중에서 정신성의 측면을 강조한다. 그것은 이전의 과학이나 철학이 항상 실재세계에서 물질성의 측면만 보아왔다는 생각에서다. 지금까지의 학문이 그렇게 된 이유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 획득한 한 대응방식을 학문에 까지 연장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인간은 신체적 도구가 빈약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인위적 도구는 외부대상을 이용하여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잘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외부대상의 나뉘어지는 측면을 주목한다. 즉 삶의 필요에 의해서 실재의 물질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물질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대상을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지성이다. 이 지성의 기능은 분석이고 지성적 인식은 형식적 인식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 지성의 발전의 역사다. 지성의 발전은 도구의 발전을 초래하고 도구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문명의 위대한 힘은 인간의 지성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져온다. 그렇게 하여 비단 利用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순수학문의 영역에서도 지성을 맹신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학문의 대상은 實在이다. 순수학문에서 지성적 인식에만 의존할 경우 실재의 반쪽부분은 사라진다.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재의 양쪽 측면을 다 봐야한다. 實在의 정신성을 파악하는 인식능력이 직관이다. 직관은 실재의 정신성, 즉 상호침투와 상호연관을 파악한다. Bergson은 직관으로 실재의 정신성을 파악하는 것이 형이상학이고, 지성으로 실재의 물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물질성과 정신성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재의 양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이상학과 과학은 하나로 결합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2) 생명과 의식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현실세계는 항상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Bergson은 그것의 각각의 원인을 물질과 conscience에서 찾는다. 이처럼 물질과 conscience는 현실세계 속에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세계를 설명해 주는 원리가 되고 있다. 우리가 보통 현실 속에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신성이 거의 빠진 상태의 물질이며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성이 거의 빠진 상태의 conscience를 말한다. 그렇지만 완전한 한쪽 측면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물질 속에는 최소한도의 지성이 들어 있으며 물질과 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순수한 정신은 實在 속에는 없다.

Bergson은 물질을 관통해 있는 conscience가 생명이라고 말한다.²⁾ 그에 따르면 근원

2)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182.

적 충동(impulsion)이고 동시에 창조적 행동성인 conscience가 물질을 만나서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생명은 생명체 속에서 성립하는 conscience이며 시간적으로 지속한다. conscience가 하나이면서 생명이 다로서 존재하는 생명체를 통하여 성립하는 것은 물질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개별적인 생명체들이 하나로서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conscience에 의해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물질로 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 있어서 생명이 물질의 해체하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할 때 생명체는 파괴된다. 따라서 생명체의 모든 노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집중된다.

생명체에서 의식적 認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극복의 노력의 일환이다. Bergson에 의하면 우리에게 외부대상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의 자극에 우리의 반작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물질과 기억”에서 말하기를 외부의 운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즉각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때 可能的 行動(l'action possible)으로서의 知覺(perception)이 생긴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은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可能的 行動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그 대상의 可能的 行動이다. Bergson은 이 지각현상을 빛의 全反射현상과 비교하여 설명한다.³⁾ 빛이 密한 매질에서 疏한 매질로 나갈 때 입사각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반사각이 90°가 넘게 되므로 全反射가 이루어지며 이때 虛像이 생긴다. 이때 이 虛像은 빛이 자기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지각이 생기는 것도 외부의 우리에게 대한 행동이 다시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고 生命이라는 自發性에 의해서 선택되어 반사된 결과로서 생긴다. 意識은 이 선택에서 성립하며 그것은 곧 可能적 행동과 실제적 행동(l'action réelle)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⁴⁾

의식은 창조가 가능한 곳에서만 나타난다. 창조의 가능성은 선택의 가능성에서 온다. 생명체가 自動運動(automatisme)으로만 일관할 때 의식은 잠들어 있다. 선택은 자발적 운동이 가능한 생물에서만 나타난다. 그런데 선택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동원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에서 성립하는 우리의 의식에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豫期가 포함되어 있다.⁵⁾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지각하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넣어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한번 볼 때와 여러번 볼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다른 것에서 알 수가 있다. 즉 나중에 볼 때는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하여 보았던 기억이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식은 거의 기억이 차지하고 있다. 기억이란 과거가 현재 속으로 들어 온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현재 속에다 첨가하는 것에서 持續이 성립한다. 지속은 과거를 현재속에 연장(prolonger)하는 기억에 의해 연속된 생명이다. 물질에는 기억이 없다. 현재는 현재대로, 과거는 과거대로 나뉘어져서 과거가 현재 속에 수록될 수 없다. 따라서 물질은 과거의 自己와 현재의 自己가 같지 않다. 즉 자기

3) Bergson, Matière et Mémoire, p.41.

4) Ibid., p.35.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145.

5) Bergson, L'Énergie Spirituelle, p.11.

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생명체는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를 현재 속으로 연장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기억이다.

Ⅲ. 지성의 기원과 기능

1) 심리적 행동으로서의 지성과 본능

물질과 conscience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양태를 갖는다. 물질은 必然性(nécessité)이고 conscience는 자유(liberté)⁶⁾이다. 생명은 이 두개를 화해시키는 수단을 찾았는데 그것이 생명체이다. 생명은 필연성 속에 삼입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는 자유이다. 생명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지 않는다. 무한히 첨가된 비결정(indétermination)은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 진화의 과정이 이 비결정의 증가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명체가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항상 똑같은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한 量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것을 운동하는 데에 소비시킨다.⁷⁾ 이 에너지는 천천히 점차적으로 식물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고정된 것이다. 동물은 이러한 에너지를 식물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얻어서 그가 운동을 할 때 소비시킨다. 따라서 生命의 본래의 경향은 우선 무기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고정하고 그것을 공간 안에서 자유 운동으로 소비시키는 것이다. 즉 시초의 생명체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얻어 축적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단절적이고 폭발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⁸⁾ 생명은 이 두 작업을 한꺼번에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물질의 방해로 인하여 이 두 작업은 나뉘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역할의 분리가 우리가 말하는 식물과 동물의 분리이다. 그러나 이 분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율의 차이만을 갖는다. 그런데 어느 집단이 계속 어느 한 쪽의 역할만 강조한다면 그 역할로 그 집단의 정의가 가능하다. 식물과 동물이 정의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에 의해서이다. 식물은 주로 에너지의 축적에 열중하며 동물은 주로 에너지의 소비에 열중한다. 이러한 동·식물의 특징은 동·식물이 각각 운동성(mobilité)과 고정성(fixité)을 갖게 된 원인이다.

동물에서는 모든 것이 운동을 위한 에너지의 이용에 수렴된다. 이 경향이 동물의 신경체계를 발달시키는데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으로 된 신경체계를 갖는 동물에서는 신체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 신경체계를 위하여 힘을 준비하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 신경체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진화하는데 그 하나는 절지동물이고 다른 하나는 척추동

6) *Ibid.*, p.13.

7) *Ibid.*, p.14.

8) Bergson, *L'Evolution Creatrice*, p.110.

물이다. 절지동물에서 신체는 다소 긴 병렬된 단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은 그 특성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속기관에 분할되어 있다. 척추동물에서의 모든 운동은 팔과 다리에 집중되어 있고 그 형태에 구애받음이 없이 기능을 수행한다.⁹⁾ 만일 생명의 성공을 물질과 환경의 방해를 극복하여 가능한 넓은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력에서 추정될 수 있다면 척추동물과 절지동물의 성공은 각각 人間과 動物에서 이루어 졌다. 그런데 人間에서 처럼 知性이 발달된 곳은 없고 곤충에서 처럼 本能이 발달된 곳은 없다. 동물의 진화는 이 지성과 본능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지성과 본능도 동물과 식물의 구분처럼 비율에 따른 경향에 의한 구분이며 지성과 본능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만일 생명에 內在된 힘이 무한한 것이라면 똑같은 생명체에 본능과 지성을 모두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여 발전시킨다. 절지동물에서는 본능이 발달하고 척추동물에서는 지성이 발달한다. 그러나 心理的 行動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척추동물에서도 본능이다. 지성은 知性없이 지내려하는 본능에 변형을 가하면서 대신하려 한다.

生命은 本質的으로 心理的 行動이며 本能과 知性は 物質에 대한 生命의 行動의 두 가지 방식이다. 본능은 有機的 도구(organic instrument)를 만들면서 그 도구에 직접적으로 부여된 행동이며 지성은 물질로 도구를 제작하는(fabriquer) 기관에 간접적으로 부여된 행동이다. 非知性的 동물의 도구는 신체의 일부분이며 그 도구에 대응하여 그것에 사용되는 본능을 갖는다. 즉 本能은 內的인 도구를 이용하는 自然的인 기능이고 有機化(organisation) 작업 자체의 연장이고 완성이다. 이러한 본능과 유기화작업 사이에는 확연한 구분이 없다. 本能이 도구를 유기화한다고 할 수도 있고 유기화작업이 본능에 延長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본능은 유기적 도구를 만들고 이용하는 기능이다. 이와는 달리 知性は 물질적 도구를 제작하는 기능이다. 知性は 推理(inference) 능력을 가지는데 추리 능력이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의 의미로 굴절시키는 능력이다. 추리는 발명(invention)의 시작이며 발명은 추리가 제작된 도구로 구체화될 때 완성된다. 우리는 동물에서의 模倣이나 이미지(image)의 自動的 연상(association automatique)에서 지성적인 것을 볼 수 있다. 人間의 지성은 기계의 발명을 그 본질적인 방식(demarche essentielle)으로 하고 있다. 기계의 발명은 진보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社會的 삶은 인공적인 도구의 제작이나 이용의引力에 의해 그 주위를 맴돌게 된다. 이러한 발명의 결과는 발명 직후에는 이전의 환경에서 뻗어 습관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발명의 새로운 점을 있게 될 때에만 비로소 나타난다.¹⁰⁾ 지성은 바로 이 도구를 제작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지성이 제작하는 도구는 본능적 도구가 완벽한데에 비하여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물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용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생명체로 하여금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생명체에 무한한 능력을 부여한다. 특히 지성이 제작하는 도구는

9) *Ibid.*, p.133.

10) *Ibid.*, p.139.

그것을 만든 제작자에게 다시 작용하여 그것이 만족시키는 필요 이외에 새로운 필요(besoin)를 창조한다. 즉 본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항상 동일한 하나의 행동 속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서 작용하지 않지만 지성은 다양한 행동의 영역을 가지며 본능처럼 하나의 행동 속에 갇혀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성의 우월성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능은 즉시 성공적인 행동을 수행하지만 지성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어느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능력은 무한히 넓혀질 수 있다. 현대의 문명이 전적으로 인간의 지성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해준다. 지성은 본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삶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단지 그 해결방식이 다를 뿐이다.¹¹⁾

2) 인식의 측면에서 본 지성과 본능

본능과 지성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인식능력의 두 종류가 된다. 본능에서의 인식은 작용되어져(jouée) 있고 행동으로 외재화(exteriorisé)되어 있으며 표상이 행동에 의해서 막히게 되므로 무의식으로 향해져 있다. 지성에서의 인식은 생각(pensée)되어져 있고 표상으로 내재화(interiorisé)되어 의식으로 향해져 있다.¹²⁾ 본능의 도구가 완벽한 대신 사용에 있어서 특정한 대상에만 적용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본능은 대상의 특정한 지점을 배우지 않고 알고 있다. 따라서 본능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선천적 인식(connaissance innée)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知性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선천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관계(rapport)에 대한 선천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어떤 관계에 대한 認識인지는 論理學者가 밝혀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보다 특수한 관계는 보다 一般的인 관계로 용해되어서 결국 하나 또는 몇개의 일반적인 틀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은 이 틀에 대한 선천적 인식을 갖고 있다. 만약 인식의 형식(forme)과 내용(matière)을 구분한다면 지성은 형식적 인식(connaissance formelle)이고 본능은 내용적 인식(connaissance materielle)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본능은 특별한 대상 또는 그 대상의 특정한 부분에만 적용되면서 內的이고 충만한 인식을 가짐에 반해서 지성은 자연적으로 外的이고 텅 빈 인식에 적용되지만 무한한 대상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틀을 갖는다. 지성적 인식의 이러한 형식적 성격은 지성의 본질적 기능이 곤경을 극복할 수단을 찾는 것이라는 데서 온다. 이러한 기능은 자연적으로 지성으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과 이용할 수단과의 관계를 주목하게 한다. 지성은 선천적으로 관계를 세우려는 경향을 갖는다.

지성에서 처럼 행동이 제작으로 향해진 곳에서의 인식은 관계로 향하게 되며 형식적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제작은 순수한 타성적인 물질에서만 행해지기 때문에 지성은 타성적인 물질로 향하여 단절되고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측면만 보게 된다. 지성은 물질을

11) *Ibid.*, p.144.

12) *Ibid.*, p.158.

Husson, L'Intellectualism de Bergson, p.114.

自己가 원하는 對象의 형태에 맞추어 잘라낸다. 지성은 現在의 事物의 형식을 결정적인(définitive) 것으로 보지 않고 잠정적인 것으로 보기를 원하며 그 형식이 그것의 내용을 이루는 물질과 아무 2 상관도 없는 것으로 보기를 원한다. 따라서 物質의 총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자르고 다시 이어 맞출수 있는 거대한 재료(étouffe)처럼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同質의이고 텅 빈 공간(espace vide)이 있다고 말할 때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각된 것은 아니고 단지 생각(conçu)된 것일 뿐이다. 실제로 지각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채색된(colorée) 공간(étendue) 뿐이다. 지성은 그 공간 뒤에 동질적이고 텅 빈 공간(espace)을 놓고 가능한 모든 분해와 조립을 시도한다. 이러한 공간(espace)은 우리의 사물에 대한 가능한 행동의 圖式(schéma)이며 人間精神의 일종의 소견(vue)일 뿐이다.¹³⁾

원래 제작하는 행동인 지성의 영역은 물질이고 형식적 인식으로서의 지성이 적용되는 것도 물질이다. 그러나 지성은 물질에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 Bergson에 의하면 形式은 行動에 相對인 것이고 行動으로부터 연역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형식적 인식은 이처럼 실용적 유용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대상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형식이란 텅 빈 것이므로 지성이 자신의 영역을 초월한 대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Bergson은 知性이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초월하는 대상에 관심을 쓸 수 있는 것은 언어 덕분이라고 한다. 인간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고 社會的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은 신호(sign)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데 곤충의 社會는 본능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언어를 구성하는 신호(sign)는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것들은 각자 특정한 대상과 작용에 부착된다(attaché). 그러나 인간의 사회에서의 제작(fabrication)의 행동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진 可變인 것이다. 個人은 자신의 역할이 신체적인 構造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그때그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역할의 유동성과 다양성은 인간이 사용하는 신호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가져온다. 인간의 언어의 특징은 이 可動性(mobilité)이다.¹⁴⁾ 인간에게 있어서 만일 이러한 언어가 없었다면 지성은 그것의 대상인 물질적인 것에만 묶였을 것이다. 언어의 가동성은 자연적 사물이 아닌 것에 대한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근거다. 그것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관념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 언어나 관념의 실용적 유용성은 그것들을 절대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관념의 창조자로서의 지성은 모든 것에다 단어를 적용시켜 관념으로 파악하려 한다. 그것은 물질적 대상이 아닌 것에도 적용되는데 그때에도 지성은 물질을 다루면서 형성한 습관을 따른다. 지성을 만족 시키는 것은 단지 이러한 습관뿐이다. 그것은 분명한 구분(distinction)과 명확성(clarté)을 추구하고 비연속(discontinuité)의 형식 아래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습관에 빠져 있는 지성으로서는 생명의 실

13)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158.

14) Ibid., p.159.

제적인 연속(*continuité réelle*)을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연속이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인 요소들의 다수성(*multiplacité des éléments*)과 모든 요소들의 상호 침투(*pénétration réciproque*) 현상은 지성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Bergson에 의하면 지성만이 찾으려(*chercher*)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결코 발견할 수 없고 본능만이 발견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본능은 결코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성은 자신의 영역을 초월 하는 대상을 가지고 오지만 지성이 원하는 만큼 초월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지성의 형식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은 지성으로부터 지성을 초월한 대상의 근저에 도달 할 수 있는 錐(*lest*)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3) 知性性(*intellectualité*)과 物質性(*matérialité*)

지성은 본질적으로 타성적인 물질로 향한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지성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지성도 그것의 형식을 물질에 부과하지 않는다. 물질과 지성은 어떤 신비한 예정된 조화에 의해서 서로 모방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의 형식(*forme commune*)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적응(*adaptée*) 되는 것 뿐이다. 이 적응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데 왜냐하면 지성성과 물질성을 창조하는 것은 똑같은 운동이기 때문이다.¹⁵⁾ Bergson에 의하면 우주안에서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두 운동(*deux mouvements opposés*)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하강 하는 운동(*mouvement de descente*)이고 다른 하나는 상승하는 운동(*mouvement de montée*)이다.¹⁶⁾ 전자는 물질의 운동으로서 현실적인 존재의 동일성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無化시키면서 無規定性으로 떨어지는 운동으로서 필연적인 법칙에서 성립하는 운동이며, 후자는 생명의 운동으로서 그 운동을 통하여 생명이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게 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비합리적인 가능성에서 성립하는 운동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자는 변화고 후자는 행동이다. 생명체의 모든 행동은 생명의 운동의 단적인 표현이다. 비행동은 행동의 반대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행동과는 다른 운동에 속한다. 따라서 비행동의 영역에 속하는 인식은 행동과는 다른 운동에서 성립한다. Bergson에 따르면 그것은 생명의 운동이 顛倒(*inversion*)된 상태로서 물질의 운동과 방향을 같이한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신에 꿈(*rêver*)에 잠기게 되면 우리의 自我를 형성하고 있는 기억들이 행동으로 나가는 대신에 서로 外在하는 수많은 표상적 기억들로 분산된다. 이 표상적 기억들은 이렇게 해서 점점 고정되어 응결되면서 서로 침투하기를 포기하게 되어 우리의 자아는 공간의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며 우리의 정신(*esprit*)은 공간에 대한 內的인 표상을 얻게 된다.¹⁷⁾ 한편 물질은 정신의 주목(*regard*) 아래서 그것의 물질성을 강조하여 정신으로 하여금 물질로 내려오게 하면서 정신에게 공간의 표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여

15) *Ibid.*, p.207.

16) *Ibid.*, p.11.

cf) 朴 洪奎, "Bergson에 있어서의 근원적 자유," 哲學研究 第10輯, p. 31.

17)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203.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된 공간의 內的 표상을 사물에서 재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기하학적 공간과 사물의 공간성(spatialité)은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게 되며 정신이 더욱 지성화 될 수록 물질은 더욱 공간화 된다.

우리의 지성을 이끌어 주는 것은 공간의 표상에 內在한 잠재적 기하학(géométrie latente)이고 모든 지성의 작업은 이 기하학으로 향하게 되며 이 기하학에서 지성은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 물질은 나누어짐에로의 경향을 갖는데 지성이 물질의 이 측면을 주목하여 나누는 것에 전념하면 할수록 물질-공간성으로의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것들의 부분들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을 공간안으로 펼쳐놓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질은 그것이 공간으로 펼쳐진다 해도 결코 완전하게 펼쳐지지 않는다. 물질은 순수공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공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 형태의 법칙들이 물질에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만약 수학적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려면 물질이 순수공간이어야 하며 지속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의 의식은 순수공간으로의 운동을 그리며 그 운동이 끝까지 계속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운동은 그렇게 멀리 가지는 못한다. 공간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에 대해서 고찰할 때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집중 시키면 시킬 수록 병렬되었다(juxtaposée)고 말했던 부분들이 서로서로의 속으로 침투되며 각각의 부분들은 서로서로의 행동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완전한 공간성은 부분들의 서로서로에 대한 완전한 외재성, 즉 상호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물질점(point matériel)에 작용하지 않는 어떤 물질점도 없다. 즉 모든 물질점은 상호 침투하면서 세계를 채우고 있다. 원자 또는 물질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작업을 충분히 계속하여 도달한 정신의 단순한 소견(vue)일 뿐이다. 그러나 물질이 분명히 나누어짐에로의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을 서로 외적인 부분들로 자를 수 있다고 잘못 가정하면서도 실용성에 충분한 만큼 실재를 반영하는 과학을 세울 수 있고 우주를 독립적인 체계들로 자르면서도 눈에 뜨이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긴장을 풀어서 사유하게 되면 실재에서 서로서로 구분되는 많은 부분들을 볼 것이며 그 부분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여러 법칙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한 부분들의 복잡성을 얻게 된다. 이 복잡성이 증가하면 이 부분들을 지배하는 법칙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무한한 복잡성과 정교한 법칙들은 실재의 적극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측면이다. 수학이 발견하는 감탄할 만한 법칙들은 적극적인 실재인 행동의 역압이다. 지성성(intellectualité)도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이러한 복잡성과 법칙에 일치할 수 있으며 알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점이 공간성(spatialité)인 운동은 정신안에 연역기능과 귀납기능같은 지성성 전체를 창조하고 동시에 사물안에는 지성성에 일치하는 복잡한 필연적 법칙들을 창조한다. 우리의 행동이 의지하게 되고 지성이 알아볼 수 있는 이 법칙은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말로 경탄해야만 할 것은 불가분적인 모든 실재가 나아가면서 완성하는 끊임없는 창조이다. 왜냐하면 수학적 법칙의 어떠한 복잡성도 이 세계 속에 새로운 어느 하나도

가겨울 수 없음에 반해서 창조는 힘은 만약 그것이 한번 주어지기만 하면 사물들의 복잡성과 법칙들을 나오게 하려면 단지 주의를 산만시켜(se distraire) 긴장을 풀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¹⁸⁾

IV. 지성과 학문

1) 지성과 운동

현실세계는 끊임없이 生成하고 있으며 모든 사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운동의 방식에는 크게 나누어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의 운동은 노란색이 녹색으로 변해가는 것과 같은 質의인 운동이고 두번째의 운동은 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발전적 운동(mouvement évolutif)이며 세번째는 “싸운다”든지 “달려간다”같은 연장적 운동(mouvement extensif)이다.¹⁹⁾ 이같은 변화와 운동이 실재의 진정한 모습이며 이 실재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이 철학이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성의 본질적인 역할은 행동을 인도하는 것이다. 행동을 할때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행동의 목표이고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때는 행동의 종점만이 우리에게 명확히 나타나며 행동자체를 구성하는 운동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도망간다. 만약 주어진다고 해도 혼동되게만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물질세계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삼입되어지는 곳도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삼입되어질 주위의 물질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물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행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세계는 우리에게는 그때그때의 고정된 모습인 狀態(état)들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지각은 물질의 이러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열된다. 우리의 지각은 연속적인 운동을 어느정도 끊어서 하나의 質 또는 狀態로 압축하여 파악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붉은 색은 변화하고 있는 붉은 색이지만 우리가 지각할 때는 변화하는 측면은 생략해 버린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質은 실재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정신의 단순한 所見(vue)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의 지성은 실재의 변화를 고정시켜서 하나의 form으로 파악한다. 이와같은 것은 다른 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생명체의 성장과정과 같은 발전적 운동을 파악할 때도 과정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중요한 단계를 중심으로 끊어서 고정된 형태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운동의 전 과정을 생각할 때는 그러한 각 단계에다가 성장운동이라는 막연한 운동관념을 덧붙여서 생각하게 된다. Bergson은 이때 사용되는 운동이라는 일반관념은 허구에 지

18) *Ibid.*, p.218.

19) *Ibid.*, p.303.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제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운동 뿐이다. 동일한 어떤 두개의 운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운동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운동과는 다르며, 꽃에서 열매가 맺는 운동은 애벌레가 번데기로 되는 운동과는 다르고, 춤추고 있는 운동은 달리는 운동과 다르고, A가 달리는 운동은 B가 달리는 운동과 다르다. 따라서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각기 다르며 同質的인 운동이란 없다. 우리의 지성은 이러한 이질적인 운동들로부터 운동일반(mouvement en général)이라는 동질적인 운동을 추출한다. 이때 생기는 운동일반이라는 관념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모호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개별적이고 이질적인 운동들을 표상할 때는 바로 이 운동일반이라는 관념으로 지성이 각각의 운동에서 끊어서 파악한 여러 狀態들을 엮어서 표상한다. 즉 우리는 동질적인 운동일반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운동의 특징적인 상태들을 덧붙임으로써 개별적인 운동을 표상하게 된다. 이때 운동일반은 하나하나 떨어져 나열되어 있는 각각의 상태들을 하나로 꿰 주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Bergson은 영사기의 과정에 비유한다.²⁰⁾ 영사기가 돌리는 필름은 움직이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연결하여 만든다. 이 필름을 영사기에 넣고 돌리면 움직이는 동작이 생생하게 표현된다. 이때의 영사기의 운동은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운동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個別的이고 서로다른 운동을 표현할 때는 개별적인 운동을 대신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 운동은 우리의 운동의 표상과정에 있어서의 운동일반에 해당한다. 實在의 개별적인 운동이 영사기의 운동과 필름과의 습이 결코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성이 파악한 운동도 결코 實在 그 自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모르고 지성에 의해서 파악된 운동을 實在의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혀 異質的인 두 운동을 공동의 척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아포리아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지성과 직관

많은 사람들이 지성의 개념적인 사유로 정신의 근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초지성적인 인식능력으로서 직관을 생각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성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성을 초월한다는 것을 시간으로부터 나와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Bergson에 의하면 정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초월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시간속에 들어가서 實在의 본질인 운동성(mobilité) 안에서 실재를 파악해야 한다.²¹⁾ 따라서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持續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지성이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운동을 고정된 狀態들의 병렬로 그려지려 재구성하는데 반하여 직관은 운동에서 출발한다. 형식적 인식으로서의 지성은 모든 대상에 적용되지만 그 대상들의 외부에 머물러 있음에 반해서 직관은 대상의 내부에 들어가서 그 실재자체를 파악한다. 본능은 특수한 대상에만 적용된

20) *Ibid.*, p.305.

21) Bergson, *La Pensée et le Mouvant*, p.26.

다고 했다. 지성이 없었다면 직관은 본능의 형태아래에 특정의 대상에만 묶여서 행동으로 外在化되지만 했을 것이다. 직관은 지성의 도움으로 그의 대상을 넓혀갈 수 있다. 內的 인식으로서의 직관이란 대상과의 共感(sympathie)을 의미하고 대상과의 일치를 의미한다.²²⁾ 이 대상의 內的 인식의 의미는 우리 자신이 대상이 될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우리자신을 아무리 外的으로 분석을 해 보아도 우리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상호침투하여 형성되는 우리의 自我(내지는 인격)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자신을 대표하는 수 많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자신에 대한 얇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그러한 認識은 그 자체 지속인 우리自我의 內的인 인식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 他人에 대한 共感을 가지는데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서로 상호침투하고 있으며 인간전체가 근원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 개별적인 생명체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 생명은 하나의 진화이며 지속이다. 個別化는 생명이 물질을 만나 物質性과의 타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구분되는 것은 물질에 의한 공간적인 구분뿐이며 생명에 있어서는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 생명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직관을 가능하게 한다. 生物學이 우리에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복잡한 물리·화학적 사실을 제공하지만 지속으로서의 생명은 기계론적인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순한 단위성(unite)도 아니고 서로 확실히 구분되는 다수성(multiplicité)도 아닌 생명체의 심오한 원인은 직관에 의해서 우리들 자신의 안에 있는 élan vital을 파악함으로써만 파악이 가능하다.

지성은 他性的인 물질로 향하고 직관은 생명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물질세계는 독립적인 여러 체계들로 이루어진 것 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상 우주는 지속하고 있으며 그 지속은 우리들의 지속과 근원적으로 결속된 것이다. 그 지속은 그 기원이나 기능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지속적인 것을 직관에 의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實在에 있어서의 변화와 지속의 측면은 정신적인 측면이다. 고유영역이 정신인 직관은 물질적인 사물에서도 지속과 변화의 측면인 정신성(spiritualité)의 참여를 파악하려 한다. 지성적인 사유에 있어서는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요소들의 새로운 배열로써 새로운 것들을 표상하게 되어, 없어지는 것도 새로 창조되는 것도 없게 되지만 지속으로 향해있는 직관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의 계속된 증가를 지각한다.

3) 과학과 철학

Bergson에 의하면 과학은 행동을 補助한다.²³⁾ 행동은 결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성은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이전의 조건들을 생각

22) *Ibid.*, p.181.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178.

23) Bergson, *La Pensée et Le Mouvant*, p.138.

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수단과 목적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은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ce tout fait)”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을 가지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le qui se fait)”의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은 실재의 운동과 생명을 파악할 수 없다. 분석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실증과학은 생명체에서도 분석을 통하여 생명적인 것을 탐구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그자체 지속이고 정신성(spiritualité)인 생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과학의 역할은 행동을 보조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지성의 작업의 延長이기 때문에 그것의 고유영역은 他性的인 物質이다. 지성의 구조와 물질의 구조는 일치하고 지성의 分節(articulation)은 물질의 分節에 정확히 적용되기 때문에 과학이 그 영역을 타성적인 물질에만 국한시키는 한 과학은 그것에 대한 절대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의 방법을 가지고 정신의 근저에까지 적용하여 물질에 대한 물리학과 정신에 대한 물리학의 두가지의 물리학으로만 실재 전체의 체계를 구성하려는 데에서 잘못된 형이상학이 나온다. 이런 형이상학은 정신의 고유한 정신성을 알지 못하여 정신을 물질에 속한 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의 틀(cadre)을 정신의 피상적인 현상에 적용시키면서 물질세계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명료하지 않게 적용되는 매우 부정확한 형태를 갖게한다. 이러한 틀은 물질과 정신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物質이든 精神이든 공허하고 모호한 認識을 초래한다. 그러나 실증과학과 분리된 형이상학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형이상학은 과학에다가 지성의 힘으로 물질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영역으로서 정신을 확보한다. 형이상학은 진정한 實在인 심리적인 것으로서의 운동성(mobilité)과 지속을 그의 대상으로 하며 그것을 직관에 의해서 파악한다.

실증과학은 물질을 대상으로하고 지성을 가지고 하는데 형이상학은 정신을 대상으로하며 직관을 가지고 한다. 따라서 형이상학과 과학의 사이에는 방법과 대상에서의 차이만 있지 優劣의 차이는 없으며 모두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경험은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사실과 명료하게 구분되는 다수성(multiplicité)과 공간성(spatialité)의 측면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순수지속적이며 법칙과 측정에 저항하는 상호침투의 형태로서 나타난다. 실증과학과 형이상학의 분리는 경험의 이러한 성질에 의거한 것이며 모두 다 자신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哲學은 형이상학과 과학의 결합을 실현한다. 철학적 直觀이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우주속의 모든사물 내부속에 작용을 하고 있는 힘(force)과의 접촉이며 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비약에 있다. 철학은 이 직관으로부터 우리의 사유가 전개됨에 따라 과학을 재결합한다. 여러 사실들과 법칙들에 작용하는 직관은 결코 그러한 법칙들과 사실들의 총합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다. 철학이 실증과학의 결과들과 동화되려고 하는 작업은 종합이 아니며 분석이다.²⁴⁾ 지속의 분석을 통해서 지속에 대한 직관으로 갈 수는 없지만 직관이

24) *Ibid.*, p.137.

25) *Ibid.*, p.138.

한번 주어지면 우리들의 습관에 일치하고 고정된 개념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견고한 지주점을 제공하는 설명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철학은 형이상학을 과학으로 구성하게 되고 과학에 보다 많은 형이상학을 넣게 되며 형이상학에 보다 많은 과학을 넣게 된다. 지식의 직관이 지성의 빛에 드러나게 되면 재빨리 옹고되고 명료하고 고정적인 개념으로 굳어진다. 학자들이 실증과학에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직접적인 직관에 의해서 주어진 것과 지성이 직관 주위에서 행한 분석의 거대한 작업을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인식의 상대성을 주장하게 된다. 지성에 의해서 개념화된 철학체계가 결정적인 것이 못되고 새로운 것에 의해서 대치되는 이유는 직관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의 작업의 완성은 직관이 충분히 계속되어서 그것이 일반화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Bergson 이 보는 인식능력으로서의 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은 Bergson 의 인식론에 속한다기 보다는 그의 認識論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인식능력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인식론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記憶理論이 포함되어야 하고 再認(reconnaissance)의 문제, 과학적 법칙의 성격과 일반관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의 인식론을 보통 생물학적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경험을 모든 학문이나 철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Bergson 에 있어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과학과 철학이 모두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은 경험에서 만나야 하며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서는 한편으로 볼 때는 과학이며 한편으로 볼 때는 철학이다. 이러한 그의 입장이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소홀히하는 관념론이나 형이상학을 배격하는 소박한 과학주의적인 입장에서 비난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Bergson 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과학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생물학적 인식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생물학, 특히 생명에 대한 Bergson 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의 입장은 확실히 진화론의 영향을 입은 바가 큰데 생명의 진화에서 단순히 생물의 물리적인 구조만의 진화가 아니라 인식의 구조의 진화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Spencer 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Bergson 은 기계론적인 진화론에 입각한 Spencer 의 견해를 수정한다. 인식론의 문제를 생명체의 생활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인간의 인식기능이 결코 靜적인 것이 아니고, 動적이며 불변의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변해간다는 견해는 지성의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反—知性的(anti-intellectualism)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Bergson 이 반대하는 것은 지성의 “뉴우튼—유클리드적인 형식(Newton-Euclidian form)”에 대한 반대이지 知性的 기능에

대한 반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知性이 적용될 수 없는 범위를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성적 사고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는다. 모든 대상은 지성에 의해서만 추구되어질 수 있고 일반화되어지는 것이다. 단지 知性만 가지고는 발견이 이루어질 수 없고 직관적 認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 뿐이다.

참 고 문 헌

1. H. Bergson, *L'Évolution Creatrice* (14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9).
2. H. Bergson, *Matiere et Memoire* (92;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3. H. Bergson, *La Pensée et Le Mouvant* (91;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5).
4. H. Bergson, *L'Energie Spirituelle* (38;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5).
5. 朴 洪奎, "Bergson 에 있어서의 근원적 자유" 哲學研究 第 10, 1975.
6. Leon, Husson, "*L'Intellectualisme De Bergs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7).